자비 손길로 미얀마 주민의 무너진 삶에 희망을 건네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 구호품 전달

네피도 마을 2곳 방문해
총 250가구 생필품 지원
"용기 잃지 말길" 격려도

미얀마 네피도=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미얀마 강진으로 아내와 누나를 잃은 소모이 씨 집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에서 구호물품을 싣고 있다.


성관 스님의 격려에 주민들이 합장으로 인사했다.



삔마나 마을 200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지당께 마을에도 쌀 ·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갈라진 도로와 무너진 집들. 지진으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 로터스월드가 직접 현장을 찾아 깊은 위로와 희망을 건넸다.

국제구호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6월 18일 강도 7.7 강진으로 참혹한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 네피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로터스월드는 지진 발생 직후인 4월 1일부터 전국 불자들과 함께 긴급 모연을 시작하는 한편, 현지 봉사단체 '포우바뗄렛야'와 협력해 피해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지원이 시급한 마을 두 곳을 중심으로 구호 계획을 수립했다. 포우바뗄렛야는 네피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봉사단체로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 복구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모연을 통해 모인 총 1만달러(한화 약 1400만원) 중 6000달러는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를 통해 현지에서 쌀(25kg), 식용유, 돗자리, 담요, 라면, 의류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250세트 구매 비용으로 사용됐고, 이는 직접 조달해 피해 가구 250곳에 전달됐다.

특히 국내 유아동복 브랜드 아가방앤컴퍼니의 아동복 지원도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지진으로 피해 입은 영유아들을 위해 아동복, 유아복, 내의류 등 3800벌(판매가 기준 약 2억원 상당)을 로터스월드에 기증했고, 4월 23일 선적을 거쳐 6월 17일 미얀마에 도착해 현장에서 배분됐다.

이날 로터스월드는 미얀마 양곤에서 차량으로 8시간을 이동해 피해 지역인 네피도에 도착했다. 네피도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무너진 구조물들이 방치된 채 남아 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첫 번째로 구호품이 전달된 지당께 마을은 지진으로 47명이 사망하고, 50가구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이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한 할머니는 손자를 등에 업은 채 벽이 무너져 손자를 잃기도 했다.

성관 스님은 "미얀마 지진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님은 "서로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존중받을 것도 없을 때 인간은 가장 괴롭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상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용기 잃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다시 평안과 건강이 깃들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린다"고 격려했다.

로터스월드는 지당께 마을 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소모이 씨는 가족 7명 중 아내와 누나를 잃고, 나무로 임시 지은 판잣집에서 남은 가족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당시 아내는 아침밥을 짓고 있다 사고를 당했다. 성관 스님은 "살아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가족을 대신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고통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담담하게 사고 현장을 설명하던 소모이 씨는 "정말 감사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어 방문한 삔마나 마을은 주민들이 자주 찾던 쇼핑센터 붕괴로 100여 명이 사망하고, 350가구가 피해를 입은 곳이다. 로터스월드는 이 가운데 피해가 컸던 200가구를 우선 선정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성관 스님은 "큰 피해에 비하면 부족한 지원일 수 있지만, 한국 불교계의 진심을 담아 준비한 정성이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남은 모금액으로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장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참을 희망하는 이는 로터스월드(02-725-4277)로 연락하면 된다.

"국제구호는 공감과 연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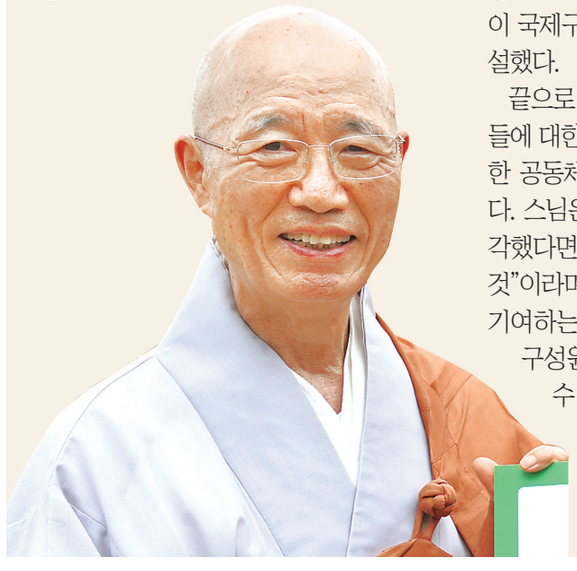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2010년 지부 설립으로 미얀마와 인연
코로나19 · 대홍수 당시도 지원 이어가
주민에 '혼자 아니다'는 믿음 전하고파
신뢰 기반으로 헌신해준 구성원들 감사

"지진 피해 현장을 마주하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세상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서로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픔을 보듬고 공감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제구호협력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직접 방문했다. 스님은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살아가려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국제구호활동의 본질을 되새겼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성관 스님은 "지진이라는 비극을 외면할 수 없어 로터스월드 차원에서 긴급구호 캠페인을 추진했고, 저 역시 직접 현장을 찾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 빨리 오지 못해 미안하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2010년 지부 설립으로 미얀마와 인연을 맺었다. 곳곳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흔적과 주민들의 깊은 신심이 큰 동력이 됐다. 성관 스님은 "미얀마는 캄보디아보다 인연이 늦게 닿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지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15년 넘게 미얀마의 교육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에 힘써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스님들이 탁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식료품을 지원했고, 2023년 말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모기장과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성관 스님은 "자연재해는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인해 생긴 업의 결과"라며 "재난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낡고 오래된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안전을 방치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성하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제구호활동의 방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스님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며 시작된 세계화가 이제는 경쟁과 욕망으로 변질되고 있고, 공감과 연대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이 옳다고 믿고 멈추지 않고 가야 한다. 그것이 국제구호단체가 짊어진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성관 스님은 로터스월드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윤이나 영리를 바탕으로 생각했다면 로터스월드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 운영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김내영 기자

"피부병 앓는 7살 포다 스님에게 '맑은 물'을"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양곤 외곽 삔야쉐봉 사원학교
스님 35명 생활…300명 교육
저수지 물 천에 걸러 식수 사용
설사·결막염 등 각종 질병 노출

짧게 깎은 머리 사이로 상처 자국이 드러났다. 군데군데 벗겨진 두피에는 피고름이 맺혀 있고, 긁힌 자국 위로 굳은 피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 올해 7살, 출가한 지 1년 된 포다 스님은 지금 매일 오염된 물과 싸우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포다 스님은 미얀마 바고 지역 출신이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하루 벌이 노동자로 살고 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가족은 아이가 '부처님 품에서 배울 수 있길' 바라며 빚을 내 삔야쉐봉 사원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그가 사원학교에 들어온 직후 피부병이 시작됐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로 세수와 목욕을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저수지에서 물을 큰 통에 담아 하루쯤 두고 침전물을 가라앉힌 뒤 천에 걸러 마신다. 겉으로는 맑아 보이지만 세균과 유해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피부병은 물론 설사·위장병·결막염 등 각종 질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매년 50만 명 이상 어린이가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동은 피부질환부터 장기 감염, 성장 지연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다.

포다 스님이 지내는 삔야쉐봉 사원학교는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다. 사원과 학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 교육공간으로, 출가한 어린 스님 35명이 생활하며 수행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또 주변 마을 초등학생 200여 명과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이곳으로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매일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수 한 통은 900짯(한화 약 340원). 한 사람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면 하루 50통 이상이 필요한데, 사원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아이들은 탁한 물을 마시고 씻는다. 같은 질환이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주지 빤리자 스님(65)은 "아이들이 땀 흘리고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깨끗한 물조차 마음 놓고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세수 한 번, 손 씻기 한 번이 병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하루하루 위태롭고 속이 탄다"고 우려했다.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아무리 걸러도 물 마실 때 알갱이 같은 게 씹혀요. 배 아픈 적도 여러 번이에요."(10살 돌란 스님) "비 올 땐 통 열어놓고 빗물 받아서 써요. 근데 더울 땐 마실 물이 모자라요. 힘들어요."(10살 뚜엔뗏 스님)

삔야쉐봉 사원학교의 스님들과 학생들은 언제든 마음 놓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온다면 포다 스님도 병 없이 배우고 자라, 언젠가 누군가를 돕는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7살로 출가한 지 1년 된 포다 스님.


큰 통에 물을 담아 침전물을 가라앉혀 식수로 사용한다.



겉으론 맑아보여도 세균과 유해 물질은 여전하다.


포다 스님의 두피 곳곳에 상처 자국이 선명하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삶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미얀마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지난해 7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전국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사원학교 4곳에 정수시설 4기를 완공했다.

삔야쉐봉 사원학교 정수시설 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이는 로터스월드(02-725-4277)로 연락하면 된다.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미얀마 양곤=김내영 기자